

‘비운의 화가’ 프리다 칼로·모딜리아니 한국 나들이

여름방학에 가볼만한 서울 전시회

소마미술관 9월 4일까지 프리다 칼로展

한가람미술관 모딜리아니 대표작 70점 선봬

국립현대미술관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

안토니 가우디·디에고 리베라 작품 전시도



모딜리아니 작 '아아 있는 잔느 에르테'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지역 유수의 미술관이 국내외 유명 작가의 전시로 관람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KTX호남선 완전 개통으로 광주와 서울이 짧게는 1시간40분에서 길게는 2시간으로 가까워진 만큼 올 여름에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미술관 투어에 나서보자.

서울 소마미술관에서는 오는 9월4일까지 '프리다 칼로-절망에서 피어난 천재화가'를 주제로 천재적 재능과 극적인 삶으로 잘 알려진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으로 유명해졌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국보로 분류하는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또 멕시코의 혁명사와 시대상을 담은 작품, 남편과의 예술적 동맹을 살펴볼 수 있는 회화, 드로잉, 사진 및 영상, 동시대 멕시코 작가 10인의 작품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관람료 6000~1만3000원. 문의 02-425-1077.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전시회가 오는 8월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 2관에서 '디에고 리베라 프라이드 오브 멕시코'를 주제로 열린다. 디에고 리베라는 20세기 멕시코 미술뿐만 아니라 벽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로 라틴아메리카 현대미술의 아버지이자 멕시코의 국보라고까지 불린다.

이번 전시에선 디에고 리베라의 초창기 회화 작품 컬렉션이 주를 이룬다. 특히 디에고 리베라의 최초의 작품들인 그의 어머니 초상과 '오리사바 산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7000~1만2000원. 문의 02-399-111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는 비운의 천재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전시가 잇달아 열린다.

'모딜리아니-몽파르나스의 전설'을 주제로 오는 10월4일까지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모딜리아니의 예술과 삶을 조명한다. 긴 목에 길쭉한 얼굴, 눈동자 없는 아몬드 모양의 눈, 목과 부드럽게 연결된 어깨 등으로 표현되는 모딜리아니의 대표작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모딜리아니는 35살에 결핵으로 숨진 탓에 10여년 화가 생활 동안 400점이 채 안 되는 작품들을 남겼다. 8000~1만

5000원. 문의 1588-2618.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안토니 가우디를 조명하는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전이 열린다. 안토니 가우디는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로, 최근 국내에서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스페인 가우디' 여행 상품이 따로 나올 정도다.

탁월한 미적 감각과 독창적 양식으로 세계 건축과 예술, 디자인분야에 새로운 장을 연 가우디의 건축 도면, 디자인 도면, 스케치, 캐스트, 가구, 장식, 당대의 기록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물 모형 등 200여점이 전시된다. 8000~1만5000원. 문의 02-837-6611.

국립현대미술관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해방이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예술가의 사명을 빛으로 끌어안았던 화가 이쾌대를 조명하는 기획전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를 개최한다. 이쾌대는 2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작품 40여점과 수채화 및 드로잉 200여점, 관련 아카이브 및 유품 20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02-2022-06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간송미술관 기획전 4부 '매년국축-선비의 향기'에서는 사연 많은 사군자들이 전시된다. 이번이 최초로 전면 공개되는 단은 이정(李鏞)의 '삼청정(三淸亭)'이 대표적이다. 이정이 41세 때인 1594년 완성한 이 책은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정의 작품 외에 표안 강세황의 대나무, 단원 김홍도의 매화, 추사 김정희의 난초 등 조선 후기 이름을 떨쳤던 서화가들의 작품이 여럿 전시된다. 6000~8000원. 문의 02-1644-1328.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는 8월23일까지 '피사마이너스원 : 무대를 넘어서'가 열린다. 지드래곤이 기획에도 참여한 이 전시에는 국내의 예술가 14팀이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건축 작품 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특히 국내 최고 인기 스타 중 한 명인 지드래곤이 문턱 높은 순수미술 분야에서 장르 경계를 넘어 작가들과 협업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1만1000~1만3000원. 문의 02-2124-88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롯데갤러리 창작지원전

15~30일 정찬부씨 개인전



'Come into bloom'

광주롯데갤러리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5 창작지원전' 2부 작가로 정찬부씨를 초대해 '전이되는 공기'(Into the nature)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창작지원전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롯데갤러리가 16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시이다.

정씨 작업의 주요 재료는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다. 형형색색의 빨대는 현대 소비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소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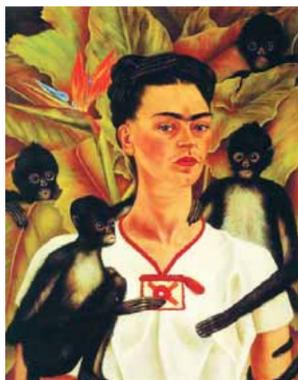
작가는 초창기 플라스틱 빨대로 산세베리아, 도마뱀 등의 동식물을 조형화한 'In the garden' 시리즈를 통해 인공과 자연이라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2012년부터 선보인 '발아' 연작에서는 생명을 싹 틔우는 씨앗을 표현해왔다.

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인다. 빨대를 타원형 형태로 길게 세우 놓았다. 작품 안에서 다양한 색을 가진 빨대가 다양한 시각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정씨의 다섯번째 개인전으로, 그는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가송예술상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문의 062-221-180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프리다 칼로와 남편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작 '원숭이와 함께 있는 자화상'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

광주출신 작가 31일까지 4명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북경창작센터 2016년도 제8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명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하 광주 지역 출신 작가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13일부터 31일까지다. 제8기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중국 북경창작센터에서 입주해 활동하게 된다.

북경창작센터는 지난 2009년 12월 중국 북경 환타이 예술구에 문을 열었으며 그동안 입주 작가들은 오픈스튜디오와 결과발표전 외에도 북경 미술대학 교수, 현지 언론, 평론가들에게 소개돼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art-muse.gwangju.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3-715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